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들불축제 지역정체성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도교수 이동훈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김소여

2019

석사학위논문

제주들불축제 지역정체성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소여

지도교수 이동훈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7월 12일

김소여의 공연예술전문석사(예술경영)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12일

위원장 정달영 (인)

위원 신영섭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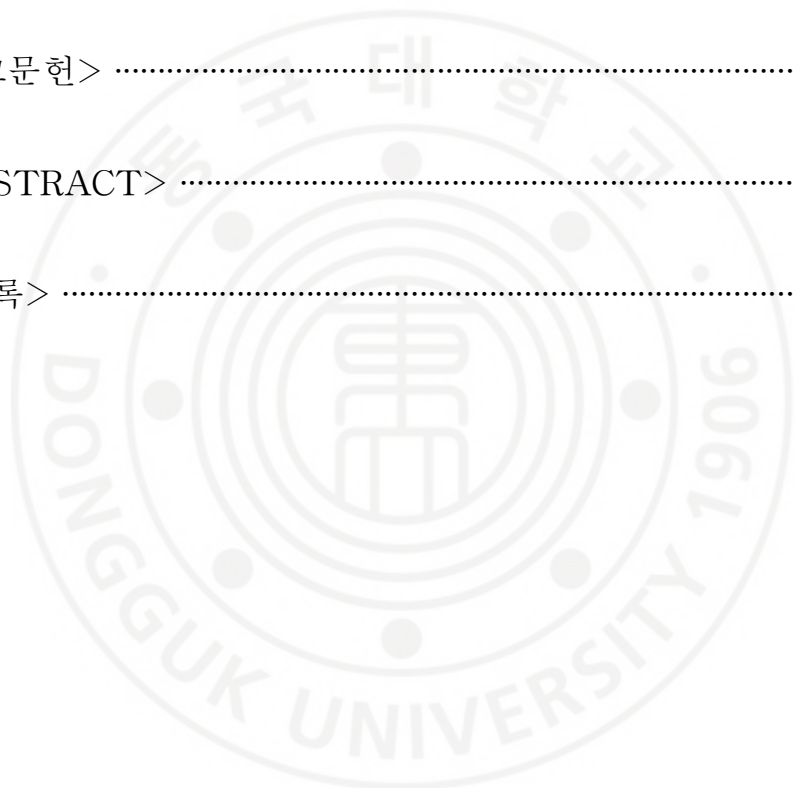
위원 이동훈 (인)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제주들불축제 현황	5
제1절 제주들불축제의 발전 과정	5
제2절 2017~2018년도 제주들불축제 현황	8
제3절 제주들불축제 SWOT 분석	16
1. SWOT 분석을 위한 전문가 조사	16
2. SWOT분석 결과	20
제3장 연구설계	28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28
1. 연구모형	28
2. 연구가설	29
제2절 조작적 정의	31
제3절 설문지의 구성 및 자료의 측정 방법	36
1. 설문지의 구성	36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7
제4장 제주들불축제 실증분석	38
제1절 제주들불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38
1. 인구통계학적 분석	38

2.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1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 44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70
5.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분석 · 85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3
<부 록>	95



<그림 목차>

<그림3-1> 연구모형 29



< 표 목차 >

<표2-1>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제주들불축제	7
<표2-2> 제주들불축제의 축제 주요내용	8
<표2-3> 제주들불축제 연도별 개최 현황 및 성과 (1997~2018)	9
<표2-4> 2017 제주들불축제 항목별 만족도	12
<표2-5> 2018 제주들불축제 전략 및 내용	13
<표2-6> 축제행정기관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16
<표2-7> 축제기획 전문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7
<표2-8> 관광경영 전문가 - 관광경영학 박사	19
<표2-9> 제주들불축제 SWOT 분석	20
<표3-1> 지역정체성의 특성	32
<표3-2>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의	33
<표3-3> 설문지의 구성	36
<표4-1> 성별의 비율	38
<표4-2> 연령대의 비율	39
<표4-3> 학력의 비율	39
<표4-4> 고향의 비율	40
<표4-5> 직업의 비율	40
<표4-6> 방문목적의 비율	41
<표4-7> 지역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3
<표4-8> 성별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45
<표4-9> 성별에 따른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45
<표4-10> 성별에 따른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46
<표4-11> 성별에 따른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47
<표4-1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48
<표4-13>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49
<표4-14>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50
<표4-15>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51
<표4-16> 학력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52
<표4-17> 학력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53
<표4-18> 학력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비교 분석	54

<표4-19> 학력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비교 분석	55
<표4-20> 고향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비교 분석	56
<표4-21> 고향에 따른 지역애착 정체성 비교 분석	56
<표4-22> 고향에 따른 공연예술 정체성 비교 분석	57
<표4-23> 고향에 따른 향토음식 정체성 비교 분석	58
<표4-24>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59
<표4-25>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사후검증	60
<표4-26> 직업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1
<표4-27> 직업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62
<표4-28> 직업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3
<표4-29> 직업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4
<표4-30> 직업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65
<표4-31>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6
<표4-32>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사후검증	66
<표4-33>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7
<표4-34>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67
<표4-35>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8
<표4-36>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68
<표4-37>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69
<표4-38>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69
<표4-39> 성별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70
<표4-40>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71
<표4-41> 성별에 따른 추천의도 비교 분석	71
<표4-4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72
<표4-43>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73
<표4-44>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74
<표4-45> 학력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75
<표4-46> 학력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76
<표4-47> 학력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77
<표4-48> 고향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78
<표4-49> 고향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78
<표4-50> 고향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79
<표4-51> 직업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80

<표4-52>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81
<표4-53> 직업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82
<표4-54>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83
<표4-55>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83
<표4-56>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84
<표4-57>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사후검증	84
<표4-58>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과 전체 만족도 상관분석	85
<표4-59> 모형의 요약 분석	86
<표4-60>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들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 및 외래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다. 당시 지역축제의 수는 1,000여개 내외로 양적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정치 및 사회, 문화 활동의 욕구가 높아졌으며, 관광산업의 개발 및 지역이미지 개선 등에 지역축제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노길수(2012)¹⁾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역축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발전, 육성시켜 축제로 승화시키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축제를 통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주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축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행정적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가 바로 제주들불축제이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첫 개최 이래 불을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축제로 인기를 모으며 축제로 연례화되어 개최되

1)노길수, 「지역 겨울축제의 방문객 만족도 측정 및 활성화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 대관령 눈꽃축제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고 있으며²⁾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제주들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의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로서 향후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본 연구는 제주들불축제의 프로그램 및 전체적인 축제장 운영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으로서 축제 방문객, 축제 집행기관, 축제 역할 참가자, 축제 관련 전문가의 전반적인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안성혜(2008)³⁾의 선행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역축제의 목적성에 따라 축제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와 상업 및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축제,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축제가 있다. 관광객 유치 축제의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시키거나 지역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지만 일반관광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다.

2)김의근, 「지역축제의 특성화 발전방안 연구-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제21집, 제주관광학회, 2018, p.33.

3)안성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8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pp.168-175.

제주들불축제의 목적성은 제주지역에 있는 오름에 들불을 놓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전통민속축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제주들불축제를 특색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들불축제의 현황조사를 위해 기존의 문헌자료들을 조사하고 제주들불축제와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들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9년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연구자가 축제장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이 제주들불축체에 얼마나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 및 운영에 지역정체성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과 함께 축제 방문객에 대한 2가지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SWOT분석을 통해 지역정체성이 반영된 축제 활성화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우선 실시하고, 문헌연구, 연구자의 축제 현장 분석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축제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정체성 반영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하여 설계된 설문지를 준비하고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통한 1:1 상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축제 개최기간 중 2019년

3월 9일에 실시되었고 총 설문지 160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5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WIN 21.0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지역정체성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 요인 파악을 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 제주들불축제 현황

제1절 제주들불축제의 발전 과정

류정아(2017)⁴⁾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고유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혀왔던 곳으로 지역축제에 관심을 가진 시기는 타 지역보다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 축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제주지역의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기존 축제를 평가한 후 대표축제를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 제주형 대표축제의 콘텐츠 및 핵심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고, 타 지역 대표축제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제주형 대표축제 모델 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주제는 타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만의 고유한 속성, 즉 제주의 지역정체성이 축제의 핵심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제주의 환경과 사회적 요구, 축제 본연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대표축제를 개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

김의근(2018)⁵⁾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의 목축문화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전통역사형 지역

4)류정아, 『제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의 축제 문화 및 개최 문화 개선방안 연구』,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 p.33.

5)김의근, 위에 글, 2018, pp.33-34.

축제이다. 가축 방목을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할 목적으로 매년 늦가을에서 경칩 기간 동안 들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불 놓기)’를 모티브화 하였으며,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 빌기 의례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였다.

제주들불축제는 매년 경칩을 포함하는 주말기간에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 제22회 제주들불축제가 개최되었다. 1997년 어음리 서부산업 도로변에서 제1회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00년부터 새별오름 일대로 개최 장소의 고정화가 이뤄졌고 2001년과 200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육성축제 지정, 200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지정,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었다. 2013년에는 축제 명칭 및 개최기간 등이 변경되었는데 개최기간은 정월대보름 전후에서 경칩이 속한 주말로 변경하고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서 제주들불축제로 변경되었다. 이는 정월대보름 시기의 제주 기상여건이 나쁜 경우가 많고 제주 지역정체성을 살린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등으로 등급화 하여 선정 및 지원된다. 지원금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 총 사업이 60억 전후로 나누어서 지원된다. 제주들불축제는 2010년도를 시작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선정결과를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표2-1>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제주들불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

연도	축제명	축제등급
2010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유망축제
2011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유망축제
2013	제주정월대보름축제	유망축제
2014	제주들불축제	유망축제
2015	제주들불축제/도두오래물축제	우수축제/유망축제
2016	제주들불축제	우수축제
2017	제주들불축제	우수축제
2018	제주들불축제	최우수축제

류정아, 『제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의 축제 문화 및 개최 문화 개선 방안 연구』, 2017 참조

보통 축제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뽑히는 것이 외부 방문객의 수와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산업연관계수로 계산되어진 결과로 측정된다. 이는 축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장기적으로 볼 때 축제가 제주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제주의 문화브랜드와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관광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문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

즉, 제주도에서의 축제에 대한 논의는 목표방문객의 확보를 통한 기대 효과보다는 축제가 제주지역의 공동체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으로 지역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지, 타 지역의 축제와는 달리 제주의

지역정체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들불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표2-2> 제주들불축제의 축제 주요내용

축제명	축제 주요내용
제주들불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목축문화를 계승한 오름 불 놓기, 달집태우기 연출 - 불·목축문화·소원성취를 소재로 한 전시·문화·체험행사 (4개 분야 86개 프로그램 구성) - 제주 농·수·축산물 및 전통 음식 판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참조, 연구자 제작성

제2절 2017~2018년도 제주들불축제 현황⁶⁾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첫 개최 이래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1997년과 2018년을 상대비교하면 개최기간은 1일에서 4일로 늘어났다. 예산규모도 1997년 54,300천원에서 2018년 1,451,153천원으로 26.7배 증가하였고 참가인원은 1997년 13,000명에서 2018년 394,458명으로 30.3배 증가하였다. 제주들불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2년 96억 원에서 2018년 278억 원으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들불축제의 연도별 개최 현황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6)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8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7. 참조

<표2-3> 제주들불축제 연도별 개최 현황 및 성과 (1997~2018)

횟수	연도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인원(명)	투자예산(천원)	문광부수상내역	생산과효과(억)	비고
1	97	2.22(토)	어음리 서부 산업 도로변	13,000	54,300	-	-	
2	98	2.10(화)~ 2.11(수)	어음리 서부 산업 도로변	35,000	139,600	-	-	
3	99	2.28(일)~ 3.1(월)	구좌읍 덕천 공동 목장	75,000	155,000	-	-	
4	00	2.19(토)~ 2.20(일)	새별 오름	126,000	271,000	-	-	
5	01	2.3(토)~ 2.4(일)	새별 오름	195,000	345,000	지역 육성 축제	-	
6	02	2.23(토)~ 2.24(일)	새별 오름	181,943	379,000	지역 육성 축제	96	

7	03	2.14(금)~ 2.15(토)	새 별 오 름	105,410	464,000	-	70	
8	04	1.30(금)~ 1.31(토)	새 별 오 름	205,400	544,000	-	98	
9	05	2.17(목)~ 2.19(토)	새 별 오 름	51,585	654,000	예 비 축 제	30	
10	06	2.9(목)~ 2.11(토)	새 별 오 름	207,611	829,000	유 망 축 제	70	
11	07	3.1(목)~ 3.3(토)	새 별 오 름	298,000	934,400	유 망 축 제	74	
12	08	2.21(목)~ 2.23(토)	새 별 오 름	320,000	761,700	유 망 축 제	159	
13	09	2.12(목)~ 2.14(토)	새 별 오 름	299,000	961,000	유 망 축 제	174	
14	10	2.26(금)~ 2.28(일)	새 별 오 름	311,000	937,772	유 망 축 제	188	
-	11	2.17(목)~ 2.19(토)	새 별 오 름	-	830,492	유 망 축 제	-	구 제 역 행 사 취 소
15	12	2.2(목)~ 2.4(토)	새 별 오 름	300,000	844,074	유 망 축 제	218	
16	13	3.8(금)~ 3.10(일)	새 별 오 름	342,000	906,074	유 망 축 제	282	
17	14	3.7(금)~ 3.9(일)	새 별 오 름	318,000	930,400	유 망 축 제	270	

18	15	3.5(목)~ 3.8(일)	제주시 일원	345,000	1,049,280	우수 축제	317	
19	16	3.3(목)~ 3.6(일)	제주시 일원	354,710	1,073,680	우수 축제	318	
20	17	3.2(목)~ 3.5(일)	제주시 일원	365,664	1,094,631	우수 축제	392	
21	18	3.7(목)~ 3.10(일)	제주시 일원	394,458	1,451,153	최우 수축 제	278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8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7. 참조

문화체육관광부(2017)⁷⁾에서 평가된 2017년 제주 들불축제의 총평을 살펴보면 첫째, 축제의 소재가 차별성이 높고 모방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메인프로그램인 ‘오름 불 놓기’의 경우 국제적인 축제로 성공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축제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었고, 지역주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단위별로 작은 잔치와 같이 어울림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체의식 형성이라는 축제 본래의 취지를 강화시켰다고 보았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첫째, 축제장의 입구부분의 상업시설의 혼재로 적절한 체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메인 프로그램인 ‘오름 불 놓기’의 행사의 경우, 주 관람석중 하나인 봉화대에서 관람할 때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몽골텐트)로 인하여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7)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

하였다. 셋째, 축제가 가지는 가치에 비하여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점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홍보방안의 모색을 요구하였다. 전체 축제의 만족도 평균과 제주들불축제의 만족도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들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먹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시설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컨셉과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먹거리, 살거리에 대한 발굴이 요구되었다. 축제의 항목별 만족도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2017 제주들불축제 항목별 만족도

구분	전체축제평균	2017제주들불축제	평균값 차이
전체만족도	5.24	5.19	-0.04
재방문/추천의사	5.52	5.66	0.14
사전 홍보	5.21	5.75	0.54
지역 문화	5.31	5.33	0.02
접근성/주차장	4.83	5.19	0.36
안내 해설	5.17	5.29	0.12
축제 재미	5.52	5.20	-0.32
시설 안전	5.34	5.00	-0.34
프로그램	5.45	5.02	-0.43
먹거리	5.17	4.64	-0.53
살거리	4.83	4.82	-0.01

김의근, 『지역축제의 특성화 발전방안 연구-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제21집, 2018. 참조 및 연구자 재작성

2017 제주들불축제의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점을 분석하여 2018 제주들불축제 개최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주관광축제추진협의회(2018)⁸⁾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개최된 제주들불축제의 개요 및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들불의 소원, 하늘에 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세계 최대의 들불 축제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유일의 불 축제로서 대표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축제의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킬러 콘텐츠를 통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고품질의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둘째,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 주체로서 관광 니즈에 부응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테마별 축제장 공간 배치로 품격 있는 축제장을 조성하고, 넷째,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2018년 제주들불축제의 전략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2-5>와 같다.

<표2-5> 2018 제주들불축제 전략 및 내용

순번	전략	내용
1	제주들불축제의 정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불불씨 봉송코스 확대 - 제주들불축제 스토리텔링(불타는 섬) 완성 - 제주 전통의 목축문화 보존을 위한 마조제 강화 - 들불불씨 안치대 설치 및 불씨 축제 운영으로 정체성 완성
2	축제 총괄감독	- 민간 전문가에 의한 축제장 공간 구성 및 프로

8)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8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8.

	운영으로 축제의 전문성 제고	그림 연출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
3	관람객들의 자발적 축제 참여유도를 위한 사전행사 시행	- 소원지, 화심대행진, 들불불씨 봉송 퍼레이드 등 사전접수 시행 - 들불불씨 봉송 퍼레이드 구간 및 중앙로에 축제 배너 사전설치
4	시 전역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막행사 확대	- 서막행사 주간프로그램 운영
5	품격 있는 축제장 조성	- 주제별 소원길, 말테우리길, 화심마당, 달집마당 등 행사장 디스플레이 개선 - 들불축제장 상징 포토존 설치 - 관람객들의 오름 시야를 고려한 메인무대 개선 - 새별오름 들불불씨 안치대 신규설치 - 들불축제 역사관, 4.3홍보관, 목축문화관 등 분산된 전시 홍보부시 통합으로 주제관 강화 - 전문음식점 신설 및 푸드트럭 존 설치로 먹거리 문제 개선 -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사인물 및 편의시설 개선
6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테마축제 완성	- ‘불테우리’를 통해 서막행사부터 마무리행사까지의 일정과 모든 ‘불’ 관장 - 주제공연과 오름 불 놓기가 하나로 연결된 미디어 파사드쇼 연출 - 폐막일에 새 생명 탄생의 땅에서 희망을 기원하는 풍물경연대회를 마지막으로 축제 피날레 장식 - 주제 무관 및 운영 저조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 주간 프로그램 발굴 및 구조화로 야간 행사와 연계 감동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글로벌 축제 - 국내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안내관 및 홍보물 외국어 병기
7	지역주민 화합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대표 중심의 들불불씨 봉송 퍼레이드 및 봉송행사 운영으로 지역주민 자부심 고취 및 화합 분위기 조성 - 읍면동 풍물놀이 경연을 통해 민속문화 계승과 마을화합 도모 - 읍면동 부스 배치도 개선 및 공연무대 설치로 화합의 공간 마련
8	마무리 행사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름 불 농기의 여운이 이어지는 묘목 나눠주기, 방애재 판매장 운영 - 신설된 풍물경연대회, 도민통합 각종 경연대회 등으로 피날레 장식 - 지역주민과 운영진, 관람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뒷풀이 프로그램 운영
9	체계적인 축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6월 축제 기본계획 수립 시작 - 축제 전문가를 총괄감독으로 공모하여 축제의 전문성 및 체계화 도모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8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8. 참조 및 연구자 재작성

이처럼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제주들불축제는 개최되는 해가 지날수록 양적 및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제주들불축제 SWOT 분석

1. SWOT 분석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전문가는 일대일 면담 형태로 한 사람 당 1~2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인터뷰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대상별로 축제의 행정기관과 축제기획전문가 및 관광경영 전문가들에게 내용을 분류하여 제주들불축제의 현황 및 전망과 축제발전을 위한 제언과 방안들에 대해 분야별로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확한 정답이 도출해내는 것이 아닌, 인터뷰 대상이 소속된 입장 등에 비추어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두었다.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중 빈도가 높은 공통의 의견을 중점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거론된 질문들과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6> 축제행정기관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질문	응답내용
질문1. 축제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시스템의 한계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전문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의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 전문성 보완을 위한 축제전문직의 공무원 고용시도 - 축제 총괄감독제 도입 - 행정기관과 축제전문기관의 역할구분 필요

<p>질문2. 제주들불축제의 메인테마와 접목시킬 수 있는 공연예술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의 메인테마 ‘불’ 소재의 활용 - ‘불’ 소재 이외의 목축문화 등의 다양한 소재의 활용 - 해외축제사례의 벤치마킹 필요 - 축제준비과정부터 시작되는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 - 시민참여형태의 공연프로그램 필요
<p>질문3. 제주들불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식과 이에 대한 한계점 및 보완점은 무엇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운영의 한계점 - 축제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우선순위 - 행정기관과 축제대행사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 축제운영비용의 현실화 필요
<p>질문4. 제주들불축제에 공연예술분야의 프로그램이 강화된다면 향후 축제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형태 프로그램의 발전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축제 참여 -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 - 일반시민집단보다 전문가집단의 참여의 공연예술프로그램들 필요

<표2-7> 축제기획 전문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질문	응답내용
<p>질문1. 제주들불축제에서 공연예술분야의 강점과 기회요인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전용장 설치로 인한 축제장소의 고정화 - 상설공연의 환경적 요건 충족

<p>질문2. 제주들불축제에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메인콘텐츠와 공연예술분야를 접목시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의 킬러콘텐츠 ‘불’의 활용 - ‘불’ 소재와 반대인 ‘바람’ 소재의 활용 - 새별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p>질문3. 제주들불축제장의 전반적인 장소에서 공연예술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의 축제전용장의 장소 활용 - 메인무대에 국한되지 않는 열린 장소에서의 공연프로그램 필요 - 민속공연 이외의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필요 - 새별오름의 상설공연프로그램의 개발 - 축제사전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축제장 자체로서의 공연장의 성격 강화
<p>질문4. 제주들불축제 기획 시 행정기관과 행사참여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과 축제전문기관의 현실적인 역할구분 필요 - 기존의 축제프로그램의 고정화 탈피 - 축제 기획자 및 연출자들의 역할증대

<표2-8> 관광경영 전문가 - 관광경영학 박사

질문	응답내용
<p>질문1. 제주들불축제가 가지고 있는 킬링콘텐츠의 한계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 소재를 활용한 공연예술프로그램의 부재 - 메인프로그램 ‘오름 불 놓기’의 일회성 - ‘불’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배치 필요
<p>질문2. 제주들불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에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시간에만 진행되는 메인프로그램의 보완 - 메인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들의 목적성 결여 -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동시다발적인 진행 필요 - 제주들불축제를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낮은 비율
<p>질문3. 제주들불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단기적 및 장기적 관점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의 목적 명확성 필요 - 메인프로그램 ‘오름 불 놓기’ 이외의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새별오름의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활용한 축제장 환경 조성 필요 - 축제의 연장성을 위한 새별오름 텐트촌 형성을 위한 연구필요 -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제주시에서 제주도 주최의 축제운영 필요

2. SWOT분석 결과

제주들불축제의 선행연구자료 및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하고 현황과약을 하여 내부적인 요인(강점, 약점)과 외부적인 요인(기회, 위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2-9>와 같다.

<표2-9> 제주들불축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이미지 -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축제장소 - 축제 전용장의 공간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 - 축제소재의 차별성 높음 - 새별오름 장소성의 활용가능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콘텐츠 적용 부족 - 축제 대표프로그램 미흡 - 축제장 참여형 체험이벤트 부족 - 축제 주간프로그램의 부재 - 축제 프로그램의 장소획일화 - 행정시스템의 한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 근무제의 확대 -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관심 고조 - SNS를 통한 홍보확대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변화로 인한 일정변경 가능성 - 지역 간 축제경쟁 강화 - 제주지역공동체의 기능약화

1) 강점(Strength)

첫째,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은 관광매력물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강화시키

고 이와 연계된 오름에서의 축제는 방문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지역 및 방문객들의 화합의 장을 열어주는 축제이다. 제주들불축제는 2007년도에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면서 제주에 대한 국·내외 방문객들의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다. 제주들불축제는 이에 걸맞게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축제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자연경관에서 이뤄지는 축제는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제주방문 관광객들에게 축제방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축제장소이다. 제주들불축제가 개최되는 새별오름은 제주의 도로 중 제주시와 중문을 잇는 평화로 중간이며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 오름을 보고 멀리 제주의 서쪽 해안을 볼 수 있는 공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녁노을이 지는 야간 시간대에는 오름, 해안 절경, 노을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는 감상적 이미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축제 공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축제 전용장의 공간의 확보이다.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인 새별오름과 주변일대는 연중 내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다.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축제를 위해 축제장을 임대할 필요가 없으며 일회성으로 축제장이 제작되는 것이 아닌 장소의 고정화로 축제 전용장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들불축제의 개최 장소는 첫 개최연도인 1997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제주시에 위치한 어음리 서부산업 도로 및 구좌읍 덕천공동목장 등 다양한 곳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도부터 새별오름에서 개최되며 현재까지 고정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넷째, 제주들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들불축

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의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다. 2014년도까지 유망축제로 이어지고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우수축제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이는 축제에 대한 높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안정적인 축제기획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2013년도부터 축제 명칭 및 개최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정월대보름 시기의 제주 기상여건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섯째, 제주들불축제는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축제소재를 가지고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이라는 소재로 열리는 축제이다. 타 지역축제들과 비교 하였을 소재의 신선함과 제주들불축제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로 제주들불축제의 킬러콘텐츠가 되었다. 특히 축제 셋째 날 저녁에 진행되는 오름 불 놓기(화산쇼)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행사이다. ‘불’이라는 소재를 통해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새별오름의 장소성 활용가능성의 확대이다. 새별오름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는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새별오름이라는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축제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장소의 활용 방안과 축제장소자체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약점(Weakness)

첫째, 지역문화콘텐츠의 적용 부족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동시대적 관점에서 그 지역에 동시대에 있는 지역문화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 축제에서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담론을 바탕으로 과거의 지역정체성을 담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 담을 수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배출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동시대적인 지역문화콘텐츠를 축제에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축제 대표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제주들불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오름 불 놓기’이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22회째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들불축제는 4일이나 되는 축제기간 동안 대표프로그램은 셋째날 진행되는 ‘오름 불 놓기’가 전부이다. ‘오름 불 놓기’ 프로그램 이후 관람객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과 나머지 축제기간에도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축제장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제주들불축제는 ‘오름 불 놓기’의 프로그램에만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들불축제를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위한 연령별 체험프로그램들과 ‘불’이라는 소재 이외에 개발될 수 있는 말, 목축문화 등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체험형태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문객들에게 축제에 대한 경험들을 심어주고 단순히 관람형태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부대행사와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축제 주간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축제 주간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방문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양적증가보다는 주간프로그램의 확실한 주제와 명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축제 프로그램들의 진행 장소가 획일화 되어 있다.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장소가 대부분 새별오름 자체보다 주변일대로 한정되어 있다. 새별오름에서는 대표프로그램인 ‘오름 불 놓기’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은 무대 위에서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확대시켜 새별오름 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라이브콘서트, 버스킹 프로그램, 퍼포먼스들을 발전시켜 장소의 획일화를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축제를 추진시키는 행정시스템의 한계성이다. 제주들불축제는 2017년도까지 축제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였다. 제주시 관광진흥과가 주무부서로서 축제의 총괄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제주시청 내 관계부서들이 축제의 각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축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축제전문가를 총괄감독으로 섭외를 하여 개최하였다. 새로운 조직 구성을 통해 나타난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축제전문가가 개입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적게 나타났다. 기존의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의 고정성과 포지션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게 나타났는데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역할에 행정기관의 개입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하여 축제전문가를 섭외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으며 단기간에 모든 역할이 구분지어지기 보다 기존의 운영방식을 통한 안정성과 전문기획자가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축제 참여율이 저조하고 공연예술 분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향후 예산을 늘려나가고 전문가에게 기획부터 운영까지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기고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지원과 자문의 역할을 맡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3) 기회(Opportunity)

첫째, 주5일제 근무제의 확대이다.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주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사람들은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근로시간의 단축,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축제기간을 3월 첫째 주에 개최하여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방문객들의 방문도를 높이고 있다.

둘째,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2019)⁹⁾에 연구 자료에서는 제주시청 및 추진위원회는 매해 실시하고 있는 종합평가 및 자체 분석을 통해 지속해서 축제의 환경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해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 항목 대부분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9)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9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9.

추진하고 2019년부터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축제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SNS 확대를 통한 간접 홍보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을 통해 제주들불축제가 가지고 있는 ‘불’을 하나의 오름을 태운다는 것은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SNS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통신의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제주들불축제의 주제와 함께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적 홍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SNS의 발전은 제주들불축제와 같은 이미지화가 가능한 축제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 위협(Threat)

첫째, 축제 기간 동안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일정변경이다. 이전의 제주들불축제는 정월대보름 시기에 맞춰 매년 2월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날씨의 영향으로 방문객들의 불편함과 행사진행의 어려움으로 2013년도부터 3월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3월 축제기간에도 비가 내리거나 잦은 기상변화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다. 제주들불축제는 축제 자체가 야외에서 진행되며 행사장의 위치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였다. 강우와 추위 등 날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편의 공간과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지역 간 축제경쟁의 강화이다. 제주들불축제 대표축제 육성 중장

기 계획수립 보고서(2017)¹⁰⁾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들은 체험과 감성 소비를 중시하는 메가트렌드와 맞물려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질 높은 관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매력물이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각 축제들은 본래의 축제의 취지에 부합한 목적을 갖고 있기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축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축제가 갖는 차별성과 특색이 나타내기 위한 개발보다는 타 지역축제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방문객 수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의식보다는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기대 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지역 공동체 기능의 약화이다. 제주지역은 궁핍한 생활과 집촌 생활로 인해 공동체적 삶을 살아왔으며 이로 인해 어려운 자연, 정치적 환경에서도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를 통해서 독특한 공동체적 문화를 만들어왔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지역 공동체적 삶은 파괴되고 최근 도시화로 인해 도민 간의 공동체적 삶은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지역주민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공동체적 축제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은 제주들불축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적인 제주의 공동체적 삶의 파괴는 제주들불축제의 영속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영속성을 가지고 이를 공유화하는 축제가 제주들불축제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10) 제주시, 『제주들불축제 대표축제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보고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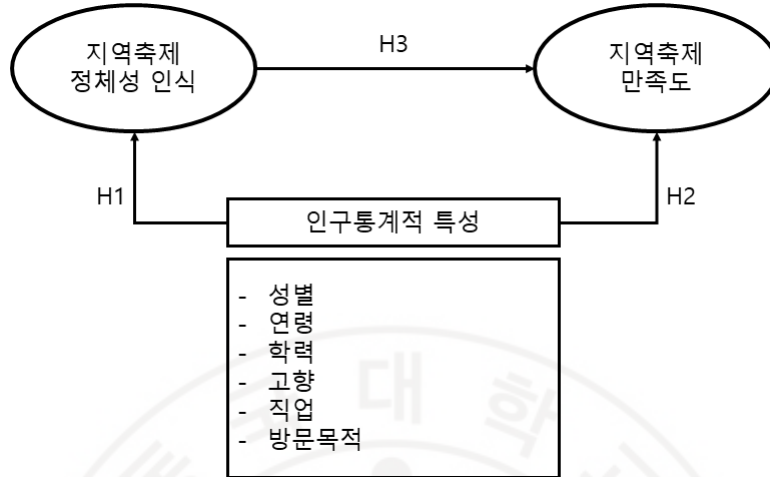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지역축제는 지역정체성을 담아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제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축제에서의 지역 정체성 인식이 지역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역축제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정체성 인식, 지역축제 만족도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연구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연구모형에 따라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 지역축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성별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연령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학력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고향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직업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방문목적에 따라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성별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연령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학력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고향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직업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방문목적에 따라 지역축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은 지역축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정체성, 만족도에 대해 규명하는데 사용된 구성개념들을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각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동일성과 개별성의 특성을 가진다. 동일성은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경우 그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성을 말하며, 개별성은 하나의 개체로서 보았을 때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말한다.¹¹⁾

계기석·천현숙(2001)의 정체성의 개념을 지역정체성에 대입하여 본다면 동일성은 ‘지역은 바로 그 지역답다’라는 개념이고, 동일화와 연속성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화는 ‘그 지역과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지거나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지는 것이고, 연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성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고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서 특이성과 우월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이성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월성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체성의 경우에는 지역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와 시간의 추이에도 변함없는 동질감 등 시간의 속성을 통해 나

11)계기석·천현숙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p.10.

12)계기석·천계숙, 위에 글, p.10.

타나는 반면, 개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며, 무언가 뛰어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들에 의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¹³⁾

<표3-1> 지역정체성의 특성¹⁴⁾

구분		주요 내용
동일성	연속성	한 지역이 그 지역답다는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인가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함
	동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혹은 시민으로서의 집단은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짐 -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시민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짐 -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시민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짐
개별성	특이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름
	우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면서 무언가 뛰어난 요소를 지고 있음 - 다른 지역에도 있는 공동요소(예: 도로)를 비교해 볼 때 더 낫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고유한 요소가 있되 질적으로 양호함

김리나, 「안동시의 지역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지역 기능을 중심으로-」, 2010. 참조

13)서의권, 「도시재생의 계획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8.

14)김리나, 「안동시의 지역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지역 기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1.

지역정체성이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규모나 속성,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특성을 통해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들의 분류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3-2>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의¹⁵⁾

연구자	지역정체성의 핵심개념	지역정체성의 구성요소
차현주(1986)	상징요소	산, 강, 사찰, 능, 명소, 특산물, 현대물, 방언, 민요, 경제구조, 음식
김한배(1994)	경관정체성	자연경관요소(산, 강, 바다)
		역사경관요소(궁성, 사찰, 정치, 종교의 용도들)
김용만(1996)	지역성	지역의 자연, 인구, 취락
		지역주민의 생활(생계활동) 주민의 생활(생활환경 정비, 정치, 사회생활 중심)
류연수(1997)	지역의 특수성	자연환경(위치, 기후, 지형, 면적, 도시개발 계획)
		사회환경(인구, 취락구조, 인구이동상황, 행정구역, 재정, 산업)

15) 임화자,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5, p.184.; 김리나, 위에 글, pp.12-15. 참조 연구자 재구성.

		인문환경(교통, 통신, 보건, 생활, 문화유산)
심재호(2000)	지역정체성	자연적 요소(산, 강, 바다, 자연물)
		역사적 요소(역사, 사찰, 이야기, 인물)
		생활적 요소(특산물, 산업구조, 관광지)
계기석 외(2001)	역사, 문화, 경관, 산업	역사정체성(역사적 사실, 인물, 역사현장, 유적)
		문화정체성(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민속, 무용, 축제)
		경관정체성(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체험)
		산업정체성(전통산업, 첨단산업, 관광)
고준희(2003)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자연적 요소(기후, 토질, 물, 식물, 산, 강, 바다, 야생동물)
		인적 요소(사람들의 신체적 특성, 지적특성, 사회적 특성, 인구, 직업, 가치관)
		사회적 요소(사회제도, 기관, 산업구조)
		문화적 요소(전설, 역사적 고적, 사찰, 박물관)
김주원(2003)	지역정체성	역사정체성(역사적 사실, 인물, 유물, 유적, 현장, 민주화운동)
		경관정체성(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구조물, 건축물, 환경운동, 체험, 이미지)

		문화정체성(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산업정체성(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노무라쓰카사(1992)	도시경관특성	자연적
		역사문화적
		생활미적

임화자,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사회교육과교육학회, 2005. ;김리나, 위에 글 참조 및 연구자 재구성

지역정체성의 구성분류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정체성은 자연환경, 자연경관, 물리적 환경요소들과 역사, 사회, 문화, 생활, 산업의 사회문화적 요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융합되어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고유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지역축제의 정체성으로는 지역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자연경과 정체성, 공연예술 정체성, 지역애착 정체성, 향토음식 정체성으로 총 4가지의 구성요소로 정의하였다.

‘지역축제 만족도’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와 축제에 대한 재방문의도 및 타인추천의도에 대한 만족도로 총 3가지의 구성으로 정의하였다.

제3절 설문지의 구성 및 자료의 측정 방법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조사에 이용된 설문지 설계를 위해 문헌조사와 연구논문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총 5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표3-3> 설문지의 구성

변수명	문항	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8	명목척도, 서열척도, 비율척도
제주들불축제 지역 정체성 인식	23	등간척도 (Likert 5점)
제주들불축제 긍정적 영향인식	3	등간척도 (Likert 5점)
제주들불축제 만족도	3	등간척도 (Likert 5점)
제주들불축제의 지역정체성 활용 프로그램 개발	1	개방형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방문목적은 묻는 8개의 문항과 제주들불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을 묻는 23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제주들불축제의 긍정적 영향인식과 관련하여 3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제주들불축제의 만족도를 3개의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들불축제에서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1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표3-3>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축제장을 방문하여 실행하였으며, 설문 응답은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표시된 지시어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 설계에 의해서 수집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집단은 2019년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시점은 2019년 3월 9일 제주들불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160부를 배포하여 158명의 유효응답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제4장 제주들불축제 실증분석

제1절 제주들불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1. 인구통계학적 분석

2019년 제22회 제주들불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중 3월9일 토요일에 축제장에 방문하여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학적통계의 항목으로 총 8개의 항목 중 거주기간 및 축제 참여횟수에 대한 2가지 항목을 제외한 6개의 항목을 통해 성별, 연령, 학력, 고향, 직업, 방문목적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4-1> 성별의 비율

성별	빈도	비율
남성	74	46.8
여성	84	53.2

설문대상 158명을 대상으로 성별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여성이 84명으로 53.2%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남성이 74명으로 46.8%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4-2> 연령대의 비율

연령대	빈도	퍼센트
20대	30	19.0
30대	41	25.9
40대	30	19.0
50대	38	24.1
60대 이상	19	12.0

연령대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30대가 41명으로 25.9%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50대가 38명으로 24.1%의 비율, 20대와 40대가 각 30명씩 19.0%의 비율을 나타냈고, 60대 이상이 19명으로 12.0%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4-3> 학력의 비율

학력	빈도	퍼센트
중졸 이하	2	1.9
고졸	77	48.7
대졸 이상	78	49.4

학력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78명으로 49.4%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고등학교 졸업이 77명으로 48.7%의 비율, 중학교 졸업 이하가 2명으로 1.9%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4-4> 고향의 비율

고향	빈도	퍼센트
제주	120	75.9
제주외지역	38	24.1

고향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제주가 고향인 사람들이 120명으로 75.9%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제주외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은 38명으로 24.1%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4-5> 직업의 비율

직업	빈도	퍼센트
학생	13	8.2
전문직	15	9.5
공무원	46	29.1
사무직	19	12.0
기술직	12	7.6
자영업	19	12.0
농수축산업	9	5.7
가정주부	15	9.5
기타	10	6.3

직업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이 46명으로 29.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사무직과 자영업이 각 19명으로 12.0% 비율,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각 15명으로 9.5%의 비율, 학생이 13명으로 8.2%의 비율, 기술직이

12명으로 7.6%의 비율, 기타는 10명으로 6.3%의 비율, 농·수·축산업이 9명으로 5.7%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4-6> 방문목적의 비율

방문목적	빈도	퍼센트
방문객	102	64.6
행사관계자	46	29.1
기타	10	6.3

방문목적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방문객이 102명으로 64.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행사관계자가 46명으로 29.1%의 비율, 기타가 10명으로 6.3%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¹⁶⁾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항목이나 척도가 어느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가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신뢰성 측정은 측정의 정확성과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보통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이용한 내적일관성 검증을 한다. 알파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은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

16)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해당 문항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한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 기준에 의한 타당성, 개념타당성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내용타당성이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준에 의한 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념타당성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 자체의 타당성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적인 과정이다. KMO(Kaiser-Meyer - Olkin)는 .5보다 크면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¹⁷⁾

17)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p.145-224.

<표4-7> 지역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구분		성분				공통성	항목이 삭제된 경우 신뢰도 계수	요인 신뢰도
		1	2	3	4			
자연경관 정체성	영향_04	.778	.284	.291	.103	.782	.920	.933
	영향_03	.774	.264	.183	.080	.709	.924	
	영향_17	.733	.263	.061	.369	.747	.925	
	영향_07	.713	.254	.174	.055	.607	.928	
	영향_08	.694	.387	.153	.108	.666	.926	
	영향_18	.667	.208	.225	.364	.670	.927	
	영향_06	.648	.239	.459	.175	.719	.924	
	영향_05	.630	.207	.356	.280	.645	.926	
지역애착 정체성	영향_09	.630	.219	.337	.124	.574	.929	.918
	영향_21	.236	.800	.154	.252	.782	.902	
	영향_22	.311	.741	.079	.235	.708	.906	
	영향_24	.159	.712	.337	.216	.693	.908	
	영향_19	.425	.605	.280	.292	.710	.902	
	영향_02	.328	.593	.399	-.019	.619	.911	
	영향_23	.560	.592	.035	.070	.670	.910	
	영향_01	.430	.579	.364	.078	.658	.907	
공연·예술 정체성	영향_20	.416	.568	.188	.272	.605	.910	.877
	영향_11	.170	.297	.850	.168	.868	.772	
	영향_10	.376	.165	.779	.108	.787	.838	
향토음식 정체성	영향_12	.276	.205	.716	.228	.683	.864	.916
	영향_13	.198	.174	.166	.876	.865	.870	
	영향_14	.194	.212	.132	.865	.848	.868	
	영향_15	.116	.179	.129	.856	.794	.898	
	고유값	11.877	1.919	1.330	1.284			
	분산설명력	51.641	8.343	5.781	5.584			
	누적분산설명력	51.641	59.984	65.764	71.348			

KMO=.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2991.955, 자유도=253,
유의확률=.000

지역정체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이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요인 “자연경관 정체성”은 .933, 제2요인 “지역애착 정체성”은 .918, “공연·예술 정체성”은 .877, 제4요인 “향토음식 정체성”은 .916의 신뢰도계수를 나타내어

일반적인 신뢰성이 있다는 .6 이상의 값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타당성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914이며 이에 대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은 2991.955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p < .001$ 수준으로 요인분석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별 고유값,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제1요인은 11.877의 고유값을 나타내고 51.641%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고, 제2요인은 1.919의 고유값과 8.343%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제3요인은 1.330의 고유값과 5.781%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고, 제4요인은 1.284의 고유값과 5.584%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내어 4개 요인의 전체분산설명력은 71.348%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에서의 지역정체성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축제 방문객의 인식도를 확인하였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의 요소들에 대한 항목으로 총 4개의 항목을 통해 자연경관정체성, 지역애착정체성, 공연·예술정체성, 향토음식정체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1) 성별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8> 성별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자연경관 정체성	남성	74	3.7538	.70855	-.206	.837
	여성	84	3.7765	.67233		

* p<.1, ** p<.05, *** p<.01

성별에 따라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206의 값을 나타냈고 여성이 평균 3.7765, 남성이 평균 3.7538의 값으로 여성이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유의확률이 .837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성별에 따른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9> 성별에 따른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지역애착 정체성	남성	74	3.8108	.55642	1.954	.053*
	여성	84	3.6057	.75786		

* p<.1, ** p<.05, *** p<.01

성별에 따라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교한 결과 남성이 평균 3.8108, 여성이 평균 3.6057로 남성이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t값은 1.954이며 $p <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성별에 따른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0> 성별에 따른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공연예술 정체성	남성	74	3.4820	.78444	.988	.325
	여성	84	3.3571	.79957		

* $p < .1$, ** $p < .05$, *** $p < .01$

성별에 따라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평균 3.4820, 여성이 평균 3.3571로 여성이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에서 약간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t값이 .988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성별에 따른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1> 성별에 따른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향토음식 정체성	남성	74	3.5180	.82603	1.201	.232
	여성	84	3.3651	.77377		

* p<.1, ** p<.05, *** p<.01

성별에 따라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평균 3.5180, 여성이 3.3651로 남성이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에서 약간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t값이 1.201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1)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자연경관 정체성	20대	30	3.5333b	.69014	2.690	.033**
	30대	41	3.7642ab	.66024		
	40대	30	3.9444a	.49925		
	50대	38	3.9357a	.46616		
	60대	19	3.5146b	1.12535		

* p<.1, ** p<.05, *** p<.01, Duncan 사후검증결과 a>b

연령대에 따라 자연경관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2.690이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p<.0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의 차이비교를 위하여 Duncan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대와 50대가 평균 3.9444, 50대 3.9357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30대는 3.7642로 평균값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대와 60대는 각각 3.5333, 3.5146으로 평균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3>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지역애착 정체성	20대	30	3.3917b	.80525	3.167	.016**
	30대	41	3.6006ab	.68762		
	40대	30	3.8250a	.51235		
	50대	38	3.8980a	.49136		
	60대	19	3.8224a	.82213		

* p<.1, ** p<.05, *** p<.01, Duncan 사후검증결과 a>b

연령대에 따라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3.167이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p<.0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ncan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대, 50대, 60대가 평균 3.8250, 50대 3.8980, 3.8224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30대는 3.6006으로 평균값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대는 3.3917로 평균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4>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공연예술 정체성	20대	30	3.2222b	.93601	4.558	.002***
	30대	41	3.2439b	.85318		
	40대	30	3.4000b	.63968		
	50대	38	3.8596a	.51774		
	60대	19	3.2281b	.80930		

* p<.1, ** p<.05, *** p<.01, Duncan 사후검증결과 a>b

연령대에 따라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4.558이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p<.01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ncan 분석을 실시한 결과 50대가 평균 3.8596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20대, 30대, 40대, 60대는 각각 3.222, 3.2439, 3.4000, 3.2281로 평균값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5>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향토음식 정체성	20대	30	3.3333	.87099	1.727	.147
	30대	41	3.6341	.72190		
	40대	30	3.1889	.69306		
	50대	38	3.5439	.78047		
	60대	19	3.3509	.96528		

* p<.1, ** p<.05, *** p<.01

연령대에 따라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727이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30대가 평균 3.6341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순차적으로 50대가 3.5439, 60대가 3.3509, 20대가 3.3333, 40대는 3.1889로 나타내었다.

3) 학력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1) 학력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6> 학력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자연경관 정체성	중졸 이하	3	2.6296b	1.97620	4.419	.014**
	고졸	77	3.8066a	.57464		
	대졸 이상	78	3.7692a	.69580		

* $p < .1$, ** $p < .05$, *** $p < .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 4.419의 값을 나타냈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이 3.8066, 대졸 이상이 3.7692로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졸 이하가 2.629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2) 학력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17> 학력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지역애착 정체성	중졸 이하	3	3.7917	1.25208	.274	.761
	고졸	77	3.7386	.61778		
	대졸 이상	78	3.6619	.71655		

* p<.1, ** p<.05, *** p<.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274의 값을 나타냈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졸업 이하가 3.7386로 지역애착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7386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619로 평균값을 나타냈다.

(3) 학력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비교 분석

<표4-18> 학력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공연예술 정체성	중졸 이하	3	3.0000	1.85592	3.510	.032**
	고졸	77	3.5801	.63615		
	대졸 이상	78	3.2692	.85796		

* p<.1, ** p<.05, *** p<.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3.510이며 유의확률이 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Duncan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인 평균만을 비교한다면 고졸이 평균 3.580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대졸 이상이 3.2692, 중졸 이하가 3.0000의 값을 나타냈다.

(4) 학력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비교 분석

<표4-19> 학력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향토음식 정체성	중졸 이하	3	3.0000	1.76383	.492	.613
	고졸	77	3.4632	.81856		
	대졸 이상	78	3.4274	.74419		

* p<.1, ** p<.05, *** p<.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492이며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고졸이 평균 3.463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대졸 이상이 3.4274, 중졸 이하가 3.0000의 값을 나타냈다.

4) 고향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비교 분석

(1) 고향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비교 분석

<표4-20> 고향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비교 분석

구분	고향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 확률
자연경관 정체성	제주	120	3.7500	.67582	-.493	.624
	제주외지역	38	3.8158	.72987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제주가 고향인 방문객의 경우 3.7500이며 제주외 지역 고향인 방문객인 경우 3.1754로 나타났다.

(2) 고향에 따른 지역애착 정체성 비교 분석

<표4-21> 고향에 따른 지역애착 정체성 비교 분석

구분	고향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 확률
지역애착 정체성	제주	120	3.6750	.70922	-.882	.379
	제주외지역	38	3.7862	.56271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제주가 고향인 방문객의 경우 3.6750이며 제주 외 지역 고향인 방문객인 경우 3.7862로 나타났다.

(3) 고향에 따른 공연예술 정체성 비교 분석

<표4-22> 고향에 따른 공연예술 정체성 비교 분석

구분	고향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공연예술 정체성	제주	120	3.3639	.81535	-1.463	.145
	제주외지역	38	3.5789	.70043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제주 외 지역 고향인 방문객의 경우 3.5789이며 제주가 고향인 방문객인 경우 3.3639로 나타났다.

(4) 고향에 따른 향토음식 정체성 비교 분석

<표4-23> 고향에 따른 향토음식 정체성 비교 분석

구분	고향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향토음식 정체성	제주	120	3.5194	.76550	2.344	.020**
	제주외지역	38	3.1754	.85858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향토음식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고향인 방문객의 경우 3.5194이며 제주외 지역 고향인 방문객인 경우 3.1754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한 차이를 볼 때 제주가 고향인 방문객이 제주 외 지역이 고향인 방문객보다 제주들불축제에서의 향토음식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직업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1)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24>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자연경관 정체성	학생	13	3.5641	.64064	4.109	.000***
	전문직	15	4.0741	.41290		
	공무원	46	3.8647	.60447		
	사무직	19	3.6082	.75665		
	기술직	12	3.3704	.39733		
	자영업	19	3.2982	.94575		
	농수축 산업	9	4.3827	.42350		
	가정주부	15	4.0296	.43536		
	기타	10	3.8222	.72992		

* p<.1, ** p<.05, *** p<.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25>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사후검증

직업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3	4
자영업	19	3.2982			
기술직	12	3.3704	3.3704		
학생	13	3.5641	3.5641	3.5641	
사무직	19	3.6082	3.6082	3.6082	
기타	10	3.8222	3.8222	3.8222	
공무원	46		3.8647	3.8647	
가정주부	15			4.0296	4.0296
전문직	15			4.0741	4.0741
농수축산업	9				4.3827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나눌 때 농수축산업인 경우가 4.3827로 가장 높은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직과 가정주부는 각각 4.071, 4.0296으로 첫 번째 높은 집단과 두 번째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은 평균값 3.8647로 두 번째 평균값이 높은 집단과 세 번째 평균값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사무직, 학생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낮은 평균값 집단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직은 평균 3.3704로 두 번째 평균값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평균값 집단에 속하고 자영업이 평균 3.2982로 가장 낮은 평균값 집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농수축산업이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영업이 가장 낮은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직업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26> 직업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 확률
지역애착 정체성	학생	13	3.3269	.90792	2.463	.016**
	전문직	15	3.9167	.45725		
	공무원	46	3.7663	.60416		
	사무직	19	3.4474	.83574		
	기술직	12	3.5833	.39648		
	자영업	19	3.5329	.65728		
	농수축 산업	9	4.2778	.42287		
	가정주부	15	3.9250	.61383		
	기타	10	3.6625	.78185		

* p<.1, ** p<.05, *** p<.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27> 직업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직업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3
학생	13	3.3269		
사무직	19	3.4474	3.4474	
자영업	19	3.5329	3.5329	
기술직	12	3.5833	3.5833	
기타	10	3.6625	3.6625	
공무원	46	3.7663	3.7663	3.7663
전문직	15		3.9167	3.9167
가정주부	15		3.9250	3.9250
농수축산업	9			4.2778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나눌 때 농수축산업인 경우가 4.2778로 가장 높은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정주부, 전문직은 각각 3.9250, 3.9167로 첫 번째 높은 집단과 두 번째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의 평균값 3.7663으로 평균값이 제일 높은 세 번째 집단과, 두 번째 평균값 높은 집단, 가장 낮은 평균값 집단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기술직, 자영업, 사무직은 각각 3.6625, 3.5833, 3.5329, 3.4474로 두 번째 평균값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평균값 집단에 속하고 있다. 학생은 3.3269로 가장 낮은 평균값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농수축산업이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이 가장 낮은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직업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28> 직업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 확률
공연예술 정체성	학생	13	3.2308	.82085	.531	.832
	전문직	15	3.5111	.74393		
	공무원	46	3.4565	.77415		
	사무직	19	3.3509	.97166		
	기술직	12	3.2500	.97572		
	자영업	19	3.2807	.75574		
	농수축 산업	9	3.5556	.74536		
	가정주부	15	3.6889	.58373		
	기타	10	3.3667	.82327		

* $p < .1$, ** $p < .05$, *** $p < .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가정주부가 3.6889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순차적으로 농수축산업, 전문직, 공무원, 기타, 사무직, 자영업, 기술직, 학생으로 각각 3.5556, 3.5111, 3.4565, 3.3667, 3.3509, 3.2807, 3.2500, 3.2308로 나타내었다.

(4) 직업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29> 직업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 확률
향토음식 정체성	학생	13	3.6154	.77991	1.036	.412
	전문직	15	3.3111	.49548		
	공무원	46	3.5580	.79831		
	사무직	19	3.4211	.75230		
	기술직	12	3.3333	.93203		
	자영업	19	3.2105	.71328		
	농수축 산업	9	3.8889	1.05409		
	가정주부	15	3.1778	.97482		
	기타	10	3.4000	.71665		

* p<.1, ** p<.05, *** p<.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농수축산업이 3.8889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순차적으로 학생, 공무원, 사무직, 기타, 기술직, 전문직, 자영업, 가정주부로 각각 3.6154, 3.5580, 3.4211, 3.4000, 3.3333, 3.3111, 3.2105, 3.1778로 나타내었다.

<표4-30> 직업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직업	N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가정주부	15	3.1778	
자영업	19	3.2105	3.2105
전문직	15	3.3111	3.3111
기술직	12	3.3333	3.3333
기타	10	3.4000	3.4000
사무직	19	3.4211	3.4211
공무원	46	3.5580	3.5580
학생	13	3.6154	3.6154
농수축산업	9		3.8889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눌 때 농수축산업인 경우가 3.8889로 가장 높은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 공무원, 사무직, 기타, 기술직, 전문직, 자영업은 각각 3.6154, 3.5580, 3.4211, 3.4000, 3.3333, 3.3111, 3.2105로 평균값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주부는 3.1778로 가장 낮은 평균값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농수축산업이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정주부가 가장 낮은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지역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1)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31>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자연경관 정체성	방문객	102	3.6993	.70837	2.482	.087*
	행사관계자	46	3.8237	.64431		
	기타	10	4.1778	.52951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F값이 2.482이며 유의확률 p<.087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32>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 비교
사후검증

방문목적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방문객	102	3.6993	
행사관계자	46	3.8237	3.8237
기타	10		4.1778

Duncan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집단에서 4.1779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고, 행사관계자가 평균 3.8237로 평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객의 경우 3.6993으로 평균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33>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자연애착 정체성	방문객	102	3.6409	.67341	3.838	.024**
	행사관계자	46	3.7174	.65055		
	기타	10	4.2500	.64010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F값이 3.838이며 유의확률 p<.024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34>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방문목적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방문객	102	3.6409	
행사관계자	46	3.7174	
기타	10		4.2500

Duncan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집단에서 4.2500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고, 행사관계자, 방문객이 각각 평균 3.7174, 3.6409로 평균값이 가장 낮은 집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3)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35>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공연예술 정체성	방문객	102	3.3889	.79338	2.030	.135
	행사관계자	46	3.3696	.73779		
	기타	10	3.9000	.94346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F값이 2.030이며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면 기타가 3.9000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방문객은 3.3889이고 행사관계자가 3.3696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표4-36>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공연예술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방문목적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행사관계자	46	3.3696	
방문객	102	3.3889	
기타	10		3.9000

Duncan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집단에서 3.9000으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고, 방문객, 행사관계자가 각각 평균 3.3889, 3.3696으로 평균값이 가장 낮은 집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4)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표4-37>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향토음식 정체성	방문객	102	3.3529	.79717	2.546	.082*
	행사관계자	46	3.5217	.76868		
	기타	10	3.9000	.84693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F값이 2.546이며 유의확률 p<.082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38>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향토음식 정체성 인식 사후검증

방문목적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방문객	102	3.3529	
행사관계자	46	3.5217	3.5217
기타	10		3.9000

Duncan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집단에서 3.9000으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고, 행사관계자가 평균3.5217로 평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객의 경우 3.3529로 평균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성별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성별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표4-39> 성별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만족도	남성	74	3.7568	.75509	1.211	.228
	여성	84	3.6071	.79179		

* p<.1, ** p<.05, *** p<.01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이 1.211이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순 평균 비교를 한다면 남성이 3.7568로 여성 3.6071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2)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표4-40>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재방문의도	남성	74	3.9459	.71943	2.928	.004***
	여성	84	3.5595	.93591		

* $p < .1$, ** $p < .05$, *** $p < .01$

성별에 따라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재방문의도에서 평균 3.9459로 여성 3.5595보다 높은 재방문의도를 나타냈다.

(3) 성별에 따른 추천의도 비교 분석

<표4-41> 성별에 따른 추천의도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추천의도	남성	74	3.9595	.71076	2.533	.012**
	여성	84	3.6429	.85929		

* $p < .1$, ** $p < .05$, *** $p < .01$

성별에 따라 추천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

한 결과 t값이 2.533이며 유의확률 $p < .012$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표4-4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만족도	20대	30	3.4000	1.00344	1.431	.226
	30대	41	3.6585	.82492		
	40대	30	3.7333	.58329		
	50대	38	3.7895	.57694		
	60대 이상	19	3.8421	.83421		

* $p < .1$, ** $p < .05$, *** $p < .01$

연령대에 따라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431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226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나타냈다. 단순 축제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비교해보는다면 60대 이상이 평균 3.8421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20대가 3.4000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2)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 비교 분석

<표4-43>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재방문의도	20대	30	3.4333	.97143	1.866	.119
	30대	41	3.6341	.91532		
	40대	30	3.9000	.60743		
	50대	38	3.8947	.64889		
	60대 이상	19	3.8947	1.14962		

* $p < .1$, ** $p < .05$, *** $p < .01$

연령대에 따라 축제의 재방문의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866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119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나타냈다. 단순 축제에 대한 재방문의도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40대가 평균 3.9000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50대, 60대 이상이 3.8947, 30대가 3.6341, 20대가 3.4333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3)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추천 비교 분석

<표4-44>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재방문의도	20대	30	3.5333	.89955	1.103	.357
	30대	41	3.8537	.85326		
	40대	30	3.7667	.62606		
	50대	38	3.8684	.62259		
	60대 이상	19	3.9474	1.07877		

* p<.1, ** p<.05, *** p<.01

연령대에 따라 축제의 추천의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103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357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나타냈다. 단순 축제에 대한 추천의도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60대 이상이 평균 3.9474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50대가 3.8684, 30대가 3.8537, 40대가 3.7667, 20대가 3.5333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3) 학력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학력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표4-45> 학력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만족도	중졸 이하	3	3.6667	1.52753	1.689	.188
	고졸	77	3.7922	.56980		
	대졸 이상	78	3.5641	.90582		

* $p < .1$, ** $p < .05$, *** $p < .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689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188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한다면 고졸이 3.7922로 가장 높은 축제 만족도를 나타냈고, 대졸 이상이 3.5641로 가장 낮은 축제 만족도를 나타냈다.

(2) 학력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표4-46> 학력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재방문의도	중졸 이하	3	4.0000	1.73205	1.364	.259
	고졸	77	3.8442	.70831		
	대졸 이상	78	3.6282	.95495		

* $p < .1$, ** $p < .05$, *** $p < .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364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259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한다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4.000으로 가장 높은 축제 재방문의도를 나타냈고, 대졸 이상이 3.6282로 가장 낮은 축제 만족도를 나타냈다.

(3) 학력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표4-47> 학력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추천의도	중졸 이하	3	4.0000	1.73205	.328	.721
	고졸	77	3.8312	.59389		
	대졸 이상	78	3.7436	.94575		

* $p < .1$, ** $p < .05$, *** $p < .01$

학력에 따라 축제의 추천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328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721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값 비교를 한다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4.000으로 가장 높은 축제 재방문의도를 나타냈고, 대졸 이상이 3.7436으로 가장 낮은 축제 만족도를 나타냈다.

4) 고향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고향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표4-48> 고향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축제의 만족도	제주	120	3.6500	.79547	-.782	.435
	제주외지역	38	3.7632	.71411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782의 값을 나타냈고 유의확률은 .43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 값을 비교하면 제주외 지역 고향인 집단이 평균 3.7632로 제주가 고향인 경우 3.6500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 고향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표4-49> 고향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축제의 재방문의도	제주	120	3.7417	.90280	.030	.976
	제주외지역	38	3.7368	.72351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축제의 재방문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030의 값을 나타냈고 유의확률은 .976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을 비교하면 제주가 고향인 집단이 평균 3.7417로 제주 외 지역이 고향인 경우 3.7368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3) 고향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표4-50> 고향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t값	유의확률
축제의 추천의도	제주	120	3.8083	.82295	.475	.635
	제주의지역	38	3.7368	.75995		

* p<.1, ** p<.05, *** p<.01

고향에 따라 축제의 추천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475의 값을 나타냈고 유의확률은 .63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값을 비교하면 제주가 고향인 집단이 평균 3.8083으로 제주 외 지역이 고향인 경우 3.7368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5) 직업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직업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표4-51> 직업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축제 만족도	학생	13	3.6923	.94733	1.179	.316
	전문직	15	3.9333	.59362		
	공무원	46	3.6522	.79491		
	사무직	19	3.4737	.90483		
	기술직	12	3.4167	.99620		
	자영업	19	3.5789	.69248		
	농수축산업	9	4.2222	.44096		
	가정주부	15	3.6667	.48795		
	기타	10	3.8000	.78881		

* p<.1, ** p<.05, *** p<.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179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316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다만 단순비교를 한다면 농수축산업 집단의 경우 4.2222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기술직이 평균 3.4167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2)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표4-52> 직업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축제 재방문의도	학생	13	3.6923	.94733	1.154	.331
	전문직	15	3.6000	.50709		
	공무원	46	3.8261	.73950		
	사무직	19	3.4737	1.12390		
	기술직	12	3.5833	.90034		
	자영업	19	3.7368	.93346		
	농수축산업	9	4.4444	.52705		
	가정주부	15	3.7333	.70373		
	기타	10	3.7000	1.25167		

* p<.1, ** p<.05, *** p<.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154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331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다만 단순비교를 한다면 농수축산업 집단의 경우 4.444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사무직이 평균 3.4737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3) 직업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표4-53> 직업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추천의도	학생	13	3.6923	.94733	1.279	.259
	전문직	15	4.0667	.59362		
	공무원	46	3.8913	.67423		
	사무직	19	3.5789	1.01739		
	기술직	12	3.5833	.79296		
	자영업	19	3.6842	.94591		
	농수축 산업	9	4.3333	.50000		
	가정주부	15	3.6667	.61721		
	기타	10	3.6000	1.07497		

* p<.1, ** p<.05, *** p<.01

직업에 따라 축제의 추천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279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259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다만 단순 비교를 한다면 농수축산업 집단의 경우 4.333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사무직이 평균 3.5789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6)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만족도 비교 분석

(1)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표4-54>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축제 만족도	방문객	102	3.6863	.78325	1.186	.308
	행사관계자	46	3.5870	.77678		
	기타	10	4.0000	.66667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186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308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 비교를 하면 기타 집단이 4.0000으로 가장 높은 축제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방문객이 3.6863의 두 번째 축제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2)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표4-55>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재방문의도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 확률
축제 재방문의도	방문객	102	3.7059	.87414	1.534	.219
	행사관계자	46	3.7174	.86057		
	기타	10	4.2000	.63246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534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219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단순 평균 비교를 하면 기타 집단이 4.2000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방문객이 3.7059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3)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표4-56>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비교 분석

구분	방문목적	N	평균	표준화편차	F값	유의확률
축제 추천의도	방문객	102	3.7255	.79798	2.415	.093*
	행사관계자	46	3.8261	.85126		
	기타	10	4.3000	.48305		

* p<.1, ** p<.05, *** p<.01

방문목적에 따라 축제의 추천의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2.415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9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57> 방문목적에 따른 축제의 추천의도 사후검증

방문목적	N	유의수준= 0.05에 대한부분집합	
		1	2
방문객	102	3.7255	
행사관계자	46	3.8261	
기타	10		4.3000

Duncan 사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집단에서 평균 4.3000으로 가장 높은 추천의도를 가진 것을 확인되었다. 행사관계자는 3.8261, 방문객은 3.72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추천의도를 나타냈다.

5.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분석

1)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과 전체 만족도 상관분석

<표4-58>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과 전체 만족도 상관분석

		전체 만족도	자연 경관	지역 애착심	공연 예술	향토 음식
Pearson 상관	전체만족도	1.000				
	자연경관	.571***	1.000			
	지역애착심	.685***	.784***	1.000		
	공연예술	.524***	.647***	.626***	1.000	
	향토음식	.339***	.479***	.500***	.403***	1.000

* p<.1, ** p<.05, *** p<.01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개념 간의 p<.01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형회귀분석 개념의 분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2)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4-59> 모형의 요약 분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 의표준 오차	통계량변화량				
					R 제곱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F 변화량
1	.66a	.485	.471	.52421	.485	35.988	4	153	.000

모형의 요약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자연경관, 지역에착심, 공연예술, 향토음식이 종속변수인 전체 만족도를 4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요인별 영향계수를 확인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60>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화오류	베타			공차	VIF	
전체만족도	(상수)	.942	.255		3.701	.000		
	자연경관인식	.033	.104	.032	.320	.750	.339	2.947
	지역애착인식	.615	.105	.578	5.860	.000	.347	2.884
	공연예술인식	.139	.072	.153	1.931	.055	.540	1.851
	향토음식인식	-.024	.061	-.027	-.392	.696	.725	1.379

a. 종속변수: 전체만족도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공선성통계량을 보면 요인별 VIF 값이 3보다 높은 값이 없어 독립변수 간의 상호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적인 회귀계수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애착심 인식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회귀계수 값은 .615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공연예술 인식은 $p < .1$ 수준에서 .139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지역애착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연예술에서 지역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했을 때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지역축제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역축제를 담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담론적인 연구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축제에서의 지역정체성 인식과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 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축제의 정체성 인식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자연경관 정체성, 지역애착 정체성, 공연예술정체성, 향토음식 정체성으로 요인화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인 네 가지의 정체성 요인을 향후 연구에서 이용한다기보다는 지역축제에 담은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평가를 했지만 이러한 점이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방문객의 감성적, 인지적 부분을 담을 수 있는 평가 변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별에 따라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애착 정체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제주의 전반적인 문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애착성을 더 강조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남성은 지배구조 상 여성보다 지역 정서 및 학연에 대한 강조성이 큰 점에서 이러한 차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연령대에 따른 축제의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연경관 정체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대의 경우는 제주들불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새별오름의 장소적인 의미와 타 지역의 오름과의 차별성에서 특이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60대의 경우 제주의 다른 축제와는 다른 광활한 주차장과 가파른 축제장 보행길은 정체성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애착 정체성과 공연예술 정체성에서 연령별에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애착 정체성을 보면 낮은 연령에서 지역애착 정체성이 낮은 것은 시대적 흐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문제시화하고 지역축제가 젊은 세대에게도 지역정체성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제주들불축제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양식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속적인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일 것이다.

다섯째, 고향에 따른 향토음식에 대한 정체성 인식 부문에서는 고향이 제주인 방문객의 정체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제주가 고향인 방문객과 아닌 경우의 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역의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음식에 대한 소개가 축제장과 판매장에 이미지화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제주가 고향이 아닌 방문객인 경우에도 제주 음식에 대한 오해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음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며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지역축제 정체성 인식 중 지역애착 인식과 공연예술 인식이 지역축제 만족도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되었다. 또한 자연경관 인식과 향토음식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먼저 지역축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지역애착 인식은 지역축제가 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운영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있지만 관광객 또한 자신에 맞춘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에 맞춘 지역적 색깔의 프로그램을 할 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며 관광객 또한 자신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타지의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공연예술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생동감과 그 지역의 고유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계기석·천현숙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 김리나, 「안동시의 지역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지역 기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서안, 「지역축제 장소성과 장소마케팅이 도시 이미지와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 김의근, 「지역축제의 특성화 발전방안 연구-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제21집, 제주관광학회, 2018.
- 남문희, 「축제이해관계자의 축제개최효과 인식이 문화관광 축제 협력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보령머드축제의 Triple Bottom 지각을 중심으로-」, 배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노길수, 「지역 겨울축제의 방문객 만족도 측정 및 활성화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 대관령 눈꽃축제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류정아, 『제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의 축제 문화 및 개최 문화 개선방안 연구』,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7.
- 문원식,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A Theoretical Study on the Community Identity」, 『사회과학연구』,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제주지역, 2019.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
- 서의권, 「도시재생의 계획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안성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 오순환, 「문화관광축제의 연상도 차이」, 관광학연구 23권1호, 한국관광학회, 1999.
- 우원정, 「NBA 마케팅전략을 통한 CBA의 SWOT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윤순갑·김명하, 「대구·경북지역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서사상』 제3집, 동서사상연구소, 2007.
- 이윤희, 「한국의 문화: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1권0호, 한국사상문학학회, 2010.
- 이훈, 「축제체험의 개념적 구성모형」, 『관광학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2006.
- 임화자,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5.
- 정강환, 「보령머드축제의 축제 경쟁력과 개최 지역에 미친 효과」,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2010.
- 정병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북 김제시 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제주시, 『제주들불축제 대표축제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보고서』, 2017.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8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7.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8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8.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2019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9.
-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ABSTRACT>

Recently, Korean local festivals have core values in the tourism industry. The festivals influence the industry in diverse ways by improving local areas' images and attracting foreign tourists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lso on Jeju, various festivals are held with expectation on the festivals and subsidie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biggest one of the festivals is Jeju Fire Festival. Since the festival started in 1997, Jeju Fir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and has continuously grown with popularity as the only one festival about fire in Korea. While conducting this study, I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local identity when designing programs of Jeju Fire Festival and operating festival venues. Accordingly, I carried out a survey of visitors to the festival to clearly understand what effects awareness of local identity has on visitors'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attachment to local areas, a factor of local identity, has influence on visitors' satisfaction with a local festival. The result implies that programs which demonstrate attachment to the local area should be additionally run. Both tourists and local people enjoy local festivals together and tourists also are satisfied with programs which show local identity and suit local people's taste, not the ones which suit their own taste. Also for

performing arts, local people want programs that they can experience and share with others and tourists also feel lively and local areas' uniqueness by joining performing arts programs that they couldn't experience but local people share.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s also show that satisfaction with performing arts programs affect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festival. Additionally, visitors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titled "Setting alight *Oreum*", a killer content of Jeju Fire Festival. However, except for the representative program, many issues including lack of day programs and participatory events, and programs which are not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other local festivals were discovered. To address the issues, it is required to develop Jeju Fire Festival's unique and differentiated programs by combining the killer content with performing arts programs.

<부 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며,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소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해당하는 숫자에 체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에 관한 응답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지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연구 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지도교수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이 동 훈

연구자: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석사과정 김 소 여

연구자 E-mail : ksn0341@naver.com

**I. 다음 질문들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이상
4. 제주지역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의 경우 제주 외 지역 군대 생활은 제주 거주기간으로 포함) ()년
5. 귀하의 고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제주 ② 제주 외 지역
6.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생 ② 전문직 ③ 공무원 ④ 사무직 ⑤ 기술직 ⑥ 자영업
⑦ 농·수·축산업 ⑧ 가정주부 ⑨ 기타()
7. 귀하의 축제장 방문 목적은?
① 방문객 ② 행사 관계자 ③ 기타()
8. 귀하께서 ‘제주들불축제’에 참여한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첫 방문 ② 이번 방문을 포함해서 () 회

II. 다음은 제주들불축제에 영향을 미친 지역정체성의 요소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의 지역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들불축제’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구성이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제주들불축제’가 다른 지역축제에 비해 차별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제주들불축제’가 개최장소인 새별오름의 경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의 생태환경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제주들불축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제주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제주들불축제’가 역사적으로 해충을 구제하고, 가축의 방목을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는 목적인 들불농기의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제주들불축제’가 제주 목축문화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제주들불축제’의 현장인 새별오름이 들불농기의 전통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제주들불축제’에서 진행되는 공연·예술 분야의 프로그램들은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제주들불축제’에서 진행되는 공연·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역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예술분야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제주들불축제’의 판매 음식들은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제주들불축제’의 판매 음식들은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제주들불축제’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은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담아 좋은 품질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제주들불축제’에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제주들불축제’는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제주들불축제’의 행사내용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제주들불축제’에서 제주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제주들불축제’의 개최장소가 주변 관광지 이용과도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제주들불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역애착심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2. ‘제주들불축제’의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집단인식을 갖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3. ‘제주들불축제’의 프로그램들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4. ‘제주들불축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제주들불축제의 긍정적 영향인식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V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지역의 환경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제주들불축제의 만족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V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재방문 의도가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제주들불축제’를 타인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